



해나하우스 신문균 건축사

사무소 삼인 건축사사무소 _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2004호(공덕동, 르네상스타워)
Tel. 02-308-5441 · Fax. 02-714-5443

건축사 신문균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2001년 삼인건축사사무소를 설립했으며, 다수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있다. 기획 디자인을 한 쿠움파트너스 김종석 대표와 본 건축물을 함께 작업하며 건축주의 꿈과 이상 그리고 경제적 측면을 모두 실현가능하도록 노력했다.



가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이재혁 건축사

사무소 (주)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 _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3가길 17 달_놀이집 1층
Tel. 02-511-5854 · Fax. 02-512-5854 · 홈페이지 www.admobe.co.kr

건축사 이재혁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공간종합건축과 케이씨건축을 거친 뒤 2003년부터 (주)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사)새건축사협의회로부터 '신인건축가상'을, 2008년에는 올림픽프라자 리모델링으로 '서울시건축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한국목조건축협회의 5-star 품질인증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재미있는 공간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울시 명륜동에 자신의 집인 '달_놀이집'을 지어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직주일체(職住一體)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올림픽프라자 리모델링, 동국대학교 도서관 증축, 우계기념관, 고창 상하농원, 우장산근린공원 힐링숲체험센터, 충신연극공유센터 등이 있다.



스테이비 호텔 최동규 건축사

사무소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_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20길 12-3 서인빌딩
Tel. 02-532-1861 · Fax. 02-536-8425 · 홈페이지 www.seoinndesign.com

건축사 최동규는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진아건축연구소와 공간연구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1978년 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8년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2001년 경기도 건축문화상 주거부문 은상,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특선, 2007년 서울특별시건축상 장려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건국대, 홍익대, 한양대 등 다수의 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다수의 교회와 주택 및 상업공간을 설계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더사랑의교회>, <신촌성결교회>, <예수소망교회>, <한소망교회>, <모새골 성서연구소>, <만리현교회>, <평창동주택>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새문안교회>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귀포 제1청사 별관 선은수 건축사

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_ 제주도 제주시 월랑로 39 동마빌딩 7,8층
Tel. 064-733-3220 · Fax. 070-4138-3220 · 홈페이지 www.suning.co.kr

건축사 선은수는 금오공대 건축공학과, 제주대 건축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건원 건축사사무소와 도우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2000년 선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대학교에서 건축학과 디자인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설계자문위원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도시계획,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작품으로는 <서귀포 제1청사 별관>, <SM1 HOUSE>, <제주 꽃자왈 도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전망대>, <라오체 리조트>가 있고, 최근에는 <애월읍청사>, <한림읍청사> 등을 설계하고 있다.

엘로우나이프 오신욱 건축사

사무소 라움 건축사사무소 _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6번길 13 더라움오피스텔 1501호
Tel. 051-816-1405 · Fax. 051-817-1407 · 홈페이지 rauma.co.kr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설계과정에서 스키마(schema)의 의미와 작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건축사 노정민과 라움건축(Raum)을 설립하여 부산 외국어대학교 마스터 플랜 현상 설계에 당선되었고, 반쪽집, 아이누리 아트센터, 마로인사옥, 옥상라움, O+A, Inter White, 남산파티오, 비골로, 초량도시민 박, 양산 어린집 등 다수의 작업을 했다. 타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과 두차례 [공상전]을 통해 공간실험을 병행했고, 2014 사고와 발현[땡]쌈집]에 참여했다. 최근 10by200 건축사 강연에 참여하였고, 건축사의 의자전을 기획하여 '짓는의자'를 출판했다. 현재 한국 건축사이며 동아대학교 겸임교수이고, 부산시 공공건축가이다. 2013년 부산 신인건축가상, 2015년 신진 건축사대상 우수상,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369성곽마을 예술공방 · 369성곽마을 사랑방 김현숙 건축사

사무소 (주)이엔 건축사사무소 _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55, 302호
Tel. 02-886-1838 · Fax. 0303-3130-1838 · 홈페이지 www.endesign.co.kr

건축사 김현숙은 프랑스 파리 벨빌 건축학교에서 도시/건축 심화과정(CEAA)과 프랑스 파리 말라게 건축학교에서 석사 및 건축사과정을 마쳤다. 2014년 주)이엔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고,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369마을건축가, 삼양동 골목 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밌하우스, 설누가, 아라동 안뜰주택, 스테이 렌트, 보롬왓정미소 등 다수의 단독주택 및 상업시설 계획과 369마을 예술공방, 마을사랑방 등 공공건축물 계획을 진행했다. 도시나 자연 속 고유한 터에 알맞은 건축 디자인, 사회적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공유·공존하는 건축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루치아의 딸 임형남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_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61길 22 2층
Tel. 02-512-6313 · Fax. 02-512-6331 · 홈페이지 www.studio-gaon.com

공동 대표인 임형남(Lim Hyounghnam), 노은주(Roh Eunjoo)는 땅과 사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둘 사이를 중재해 건축으로 빛어내는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1998년부터 함께 가온건축을 운영하고 있다. '가온'이란 순우리말(순한 국어)로 가운데라는 뜻과, '집의 평온함(家穩)'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가장 편안하고, 인간답고, 자연과 공존하는 집을 만들고자 한다. 금산주택, 루치아의 딸, 신진말 빌딩, 존경과 행복의 집, 언포게터블, 미장아빤 등을 설계했다. 적십자 시리어스 리퀘스트, 유니세프 관련 청소년 시설, 북촌길·계동길 탐방로 등 도시·사회 관련 설계를 진행했다.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에 건축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고, 『그들은 그 집에서 무슨 꿈을 꾸었을까』, 『사람을 살리는 집』, 『나무처럼 자라는 집』, 『작은 집, 큰 생각』, 『이야기로 집을 짓다』, 『서울풍경화첩』 등 11권의 저서를 냈다.

